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14년 만에 새 국면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무상 사용' 급선회  
국방부·도 협의 "소유권은 국가, 사용권은 제주"  
수용시 제주특별법 개정... 임대농 설득도 관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14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제주도와 국방부는 평화대공원 부지인 알뜨르 비행장을 국가 소유로 남겨두는 대신, 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대공원의 전제 조건인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 정리 문제가 '무상 양여'에서 '무상 사용'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와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는 지난주 만나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방안을 협의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일본 군사기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 관광명소'로 탈

바꿈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처음 계획됐다. 조성 사업비는 794억원으로 추산된다.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려면 국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뜨르 비행장(169만㎡)은 평화대공원 전체 사업 부지(184만9672㎡)의 91%를 차지한다.

도는 2011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알뜨르 비행장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비행장은 지금까지도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다.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국방부 입장과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 입장이 10년

째 팽팽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대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채택한 뒤에도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도가 '무상 양여 대신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방부 설득도 쉽지 않을뿐더러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에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나와있을 뿐,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없다. 다만 도는 무상 사용을 국방부가 허락하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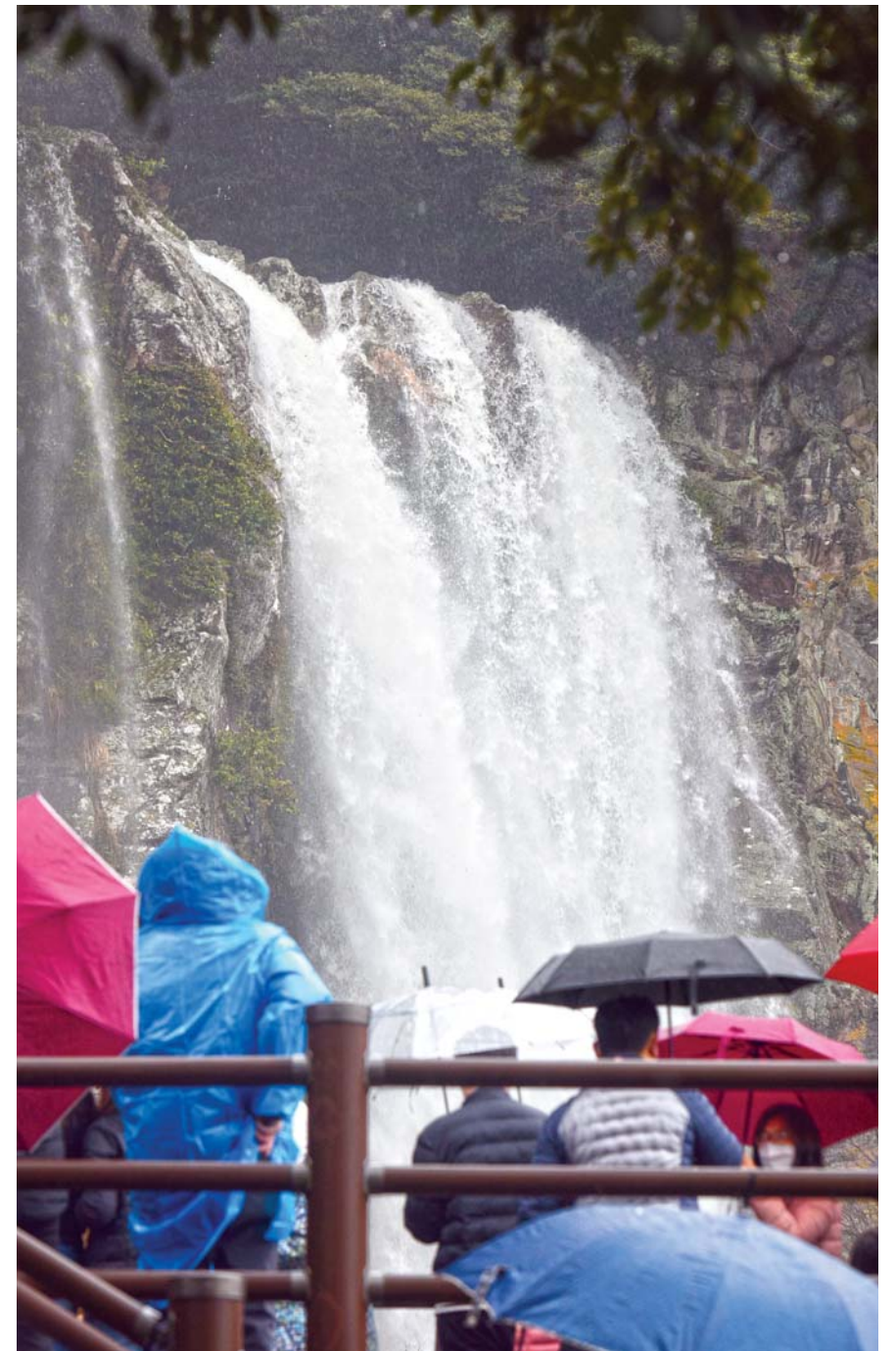
국유재산에 건설할 수 있는 '영구 시설물' 대상이 제한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국유지에는 교량 등 사회기반 시설이나 주민 문화·체육시설만

영구적으로 시설할 수 있다. 단 이런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을 달면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는 국가 기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법을 폭넓게 해석하면 평화대공원에 들어설 전시관을 포함해 복원할 격납고 등은 주민 문화 시설로 볼 수 있다"며 "국가 기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임대농민들의 생계 문제이다. 대정읍 농민들은 알뜨르 비행장 169만㎡ 중 124만㎡를 국가로부터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수십 년째 5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연장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평화대공원이 조성되면 이들은 생계 터전을 잃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임차농 문제는 제주도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비 오는 날이면... 장관 이룬 영도폭포 제주 산간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1일 서귀포시 영도폭포에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상민기자

설 명절 물가관리 돌입  
도 "제주용품 가격 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연휴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주자치도는 설을 앞두고 과일, 채소류 등 제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성수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시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관리를 도모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과일,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며 명절 성수품 가격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기간 동안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 성수품과 생필품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한 품목의 가격을 도홈페이지에 비교·공개한다.

고대민기자 bigroad@ihalla.com

##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15~17일 실시

한라일보 등 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 공동으로  
조사결과 오는 18일 오후 8시 발표 후 도·의회 전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도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CBS, 제주MBC, JIBS, KBS제주, KCTV, 연합뉴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서도 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한 유권 해석을 도선관위에 요청했으며, 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제2공항 찬·반 문항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포함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는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위한 실무협의를 벌여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는 국내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각각 제주도민 2000명과 성산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건설 찬성·반대를 묻는다. 조사 시점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다.

이번 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가 성산을 지역에 추진하려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도 수렴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18일 오후 8시 9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그 결과가 전달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언론사를 통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들불축제 비대면·드라이브인 방식 개최

3월 8~14일 일주일간 진행  
방문객은 1일 1000명 제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올해 제주들불축제를 비대면과 드라이브인, 사전예약방식 등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새별오름에서 일주일간 개최되는 올해들불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온라인과 드라이브인, 참가인원 제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들불축제의 최대 볼거리인 오름 불놓기는 3월 13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할 계획이나, 기상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일정을 조정한다. 새별오름 불놓기 장면은 영상으로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또한 관람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1일 1000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드라이브인 참여자들은 자동차 안에서 잠엄한 화산 분출소 등 오름이 타오르는 숨 막히는 장면을 감상하게 된다. 이윤형기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제주  
과잉 관광으로 망가져가는  
제주 아님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세련된  
공항 도시의 옷을 입은  
제주 아님니다,  
제주의 산과 들이  
마을과 사람이  
생명과 바다가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길 바랍니다.

## 지금 그대로의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제2공항을 막아주세요.

# 제2공항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반대한다”고 답해주세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제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9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제주다움을 지켜갑시다"

이 광고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과자연의친구 박찬은 김양희 강희지 윤소영 고아라 문홍석 오인환 양창권 서보라미 홍은화 이수연 송유나 김수진 장은아  
이은결 서혜원 황민갑 윤선옥 김경태 오유진 최수희 바른장터 임성조 정세희 녹색당\_이정 송현섭 허윤주 최정운 이수연

**제주를  
지키는  
“반대”**